

美國務長官은 韓美條約의 批准을 要請하는 證言에서 「北韓은 事實上 中共의 一州의 地位로 되어 있는 現今의 情勢로서는 全韓國을 平和의 手段으로 統一할 希望은 극히 박약하다 且 言明하였다. 또 아이젠하워 大統領도 十三日의 記者會 見席上에서 北韓의 中共軍은 地下設備의 建設을 強力히 推進하며 休戰의 期間을 利用하여 強固한 防衛線을 構築하였다」므로 韓國의 平和의 統一은 困難한 事이라는 意味의 談話를 發表하였다. 한편 韓國國防部에서는 反共捕虜가 釋放됨 來二十三日을 義勇靑壯年의 날로 決定하여 防衛強化의 精神을 強調한 한편 萬一의

韓國再侵時亡中本土攻擊

時急한 救護를 要하는

人事

最終目標新舊敎合同

六年만인第二回世界敎會會議

예루살렘(耶路撒冷)에 있는 세계대회는 오는 八月十五日(土) 同末日까지 미국 예루살렘에서 개최될것이라 하는데 이 대회는 一九四八年 암스테르담에서 제1차 상임대회가 개최된 이래 제2회의 대회가며 그 동안 각 가맹국의 단체 및 기관을 통하여 각종의 기본문제에 관한 조사연구를 계속하여 왔으며 가맹국은 五十八개국이며 百六十개 단체의 대표자 정식의원 六百名, 준회원, 음서버 등 전부 五千명이 참가하리라 한다.

기본 주제는「세계의 소망인 그리스도」이며 부주제로「신앙문제」「선교 문제」「제일사 회 문제」「국제 문제」「집단 계급 문제」및「신도 문제」등 여섯가지 과제가 이제까지 조사된 연구 자료에 의하여 토의될것이다.

이 운동은 한 하나님, 한 주를 믿는 그리스도 교회의 분파가 수백으로 분열되어 가는 것은 신학적 또는 역사적

勉靑連合會

音樂傳道隊合同奉仕

지난번 판서지방 주치의 신년사경회는 특기할 사항이 있었다고 전한다.

그것은 연정연합회가 창립후 처음으로 각교회의 청년회가 합동봉사를 한것이다. 곧 이번의 신년사경회를 기회 삼아서 경도, 대관, 동북부, 동서부, 川西, 尼崎, 平野, 武庫川, 九龍에서 연합전도 음악 전도대를 조직하여가고 그 대원 二十二명이 경도교회 사

多摩川敎會新築

이런즉 목사는 벌써 제자년 八일에 오는데 목사의 사직으로부터 동경으로 다가가와 지경로 상봉식을 행하고 지금은 여기서 노숙하고 생활하고 있는 벼를 바라보는 중인데 오는 二 우리 동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月 상에는 준공할 예정이라 계획하는데 성신노복하면 작고 한다.

년부터 수심장 신자들과 있었으나 동 예배당은 약 四十만원에 예배당소가 없어서 곤란중 예배당은 十三萬圓의 차에 심히 어려운데가운데 예배당은 五萬圓을 건립할 계획인데 건축을 계획하여 작년 연말부터 아직 약 十五萬圓이 부족하다 이제 착수하여 공사할 전로 계획 유지 여러분의 성의 영세오면바 지난해 十二月二十 있는 장소를 바란다고 한다.

在日兒童敎育機關

지난九日期成會結成

본지에도 여러번 보도하여 왔거니와, 제일 교도 아들의 교육 기관을 설치하자는 안을 재일 한국 거류민단 중앙재일 한국 청년회에서 일출 十七 임시 전체대회에서 일출 추진 시키기로 가결된 것인데 그 동안 수차 본국 정부 외 무부 및 문교부 당국과 협을 이 날 午前 十一시에 거부

大韓YMCA聯合會長

白樂濬博士歡迎會

오랫동안 문교장관으로 수고하다가 지금은 연세대학교총장이신 백낙준 박사가 우리 이대 총령의 친선 특사로 동남아세아 각국을 여행하고 귀국하는 길에 지난 十一日 오후에 하

여러분을 만나고 귀여운 어린이들의 노래를 들을 때에 벌써 본국에 온것같은 느낌이 있다. 현대청년층에는 과학관능을 믿는 이들이 많고 특히 최근에는 좌경사상을 가진것으로 자랑을 삼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극히 소수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다. 이들도 있다 비록 소수지만 저를 알아알로 다음 세대를 지고 갈 사람들이다. 유명한 비스 막이 말한 말이 있다. 이십여 원리를 실행하는 자가 모이고 세에 사회주의(공산주의) 사상 가지지않는자는 가장 현명 지 못한 청년이요 사심이 남아 우리 YMCA를 통하여 그리스도 그날 그 주의를 고집하

러 직원들과 우리 YMCA에서 출원한 이사장 대리 본사 주필 전영택 목사, 총무 김우현 목사, 양학만 김하남 양이사, 전진사 김하주씨 외 연세출신 학원가 정영수씨이신 김도성의 환영을 받고 본 제

이런즉 목사는 벌써 제자년 八일에 오는데 목사의 사직으로부터 동경으로 다가가와 지경로 상봉식을 행하고 지금은 여기서 노숙하고 생활하고 있는 벼를 바라보는 중인데 오는 二 우리 동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月 상에는 준공할 예정이라 계획하는데 성신노복하면 작고 한다.

년부터 수심장 신자들과 있었으나 동 예배당은 약 四十만원에 예배당소가 없어서 곤란중 예배당은 十三萬圓의 차에 심히 어려운데가운데 예배당은 五萬圓을 건립할 계획인데 건축을 계획하여 작년 연말부터 아직 약 十五萬圓이 부족하다 이제 착수하여 공사할 전로 계획 유지 여러분의 성의 영세오면바 지난해 十二月二十 있는 장소를 바란다고 한다.

본지에도 여러번 보도하여 왔거니와, 제일 교도 아들의 교육 기관을 설치하자는 안을 재일 한국 거류민단 중앙재일 한국 청년회에서 일출 十七 임시 전체대회에서 일출 추진 시키기로 가결된 것인데 그 동안 수차 본국 정부 외 무부 및 문교부 당국과 협을 이 날 午前 十一시에 거부

그리고 총 음악전도대의 해
영을 전이들은 아래와 같다.
영원한 음악부장 鄭淑子(경도
회) 전도부장 金相主(대만북
부회)

會新築

八日 오후에 목사의 사식으
로 상향식을 행하고 지금은
벽을 바르는 중인데 오는 二
월 상순에는 준공할 예정이라
한다.

동 예배당은 약 四十만 원
예산으로 건평 十三평방의 작
은 교회로 건설할 계획인데
아직 약 十五만 원이 부족하
므로 교계 유지 여러분의 성의
있는 산조를 바란다 고 한다.

教育機關

期成會結成

하여 원조금을 얻게 되었으
로 우선 東京 大阪에 오는
신학년도부터라도 모원, 케이
스 하원을 설립하기로 하
자. 지난 九日「하원 설립 기
성」를 조직하기 위한 발기인
회가 소집되었다.

이 날 午前 十一時에 겨우

그러면 왜 현대 공산주의는
그렇듯 힘이 있고 기복되는
무력하나 그것은 공산주의는
실행하는 사람이 많았고 기복
하는 그들 따르는 자로 실행
하는 이가 적은 까닭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제 심상은
기복되는 원리로 보아서 공산
주의보다 못하지 아니할까 아
나라 원천 우월한바가 있다
문제는 이를 실행하는 자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다.
Y.M.C.A의 운동은 이 귀한
원리를 실행하는 자가 모이고
도 실행하도록 하는 훈련을
주는 것이다. 바라건대 일본의
우리 Y.M.C.A를 통하여 그리
스도의 정신을 실행하는 청년
이 많이 생겨서 그들이 조국
을 살리고 부흥하는 역할을
맡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四面五段에서 계속)

李博士는 말하되 不當한休戰
條約을 맺는다면 우리는 죽음
으로써 自由를 위하여 싸울것
이며 심지어는 우리를 援助해
주고있는 美國與國連邦의 友好
를 無視하고라도 共產主義侵略
과 계속하여 싸우겠다고 주장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美英聯
이 主權을 기도를 올리려 하
는것을 그의 國權의 尊嚴을 해
하는 變態한 行爲을 명제하고
있을것이다.

다모아라에서 呼號한 自由
전 그當時 呼號한 사람들은 그後의
希冀의 實現과 理想이 實現되었다.
火刑을 당한 聖도크는 그의 高
貴한 魂의 調하위에 오늘날
佛蘭西가 盛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누가否認할수 있을것
가! 그와 그의 國民은 노예가
되는것보다 自由를爲하여 魂生
할것을 하나같이 맹세하고 있
는 것이다. 이승만博士야말로 자
己의 信念과 理想을 爲하여 용감
하게 싸우는 우리의 至지와
은라도 같은 韓國의 國父라고
그의 國民은 믿고있으며 그의

本紙主筆

田榮澤牧師回辰

(사진은田氏)



본지 主筆 田榮澤牧사는 今
年一月十八日 回國을 맞이하
시게 되어 지난 十四日 午前六
時 C.A.T.으로 귀향하였다
목사는 그의 半평생을 주로
基督教文學의 育成에 바쳤고
특히 本紙의 主筆로 家族과
同나 異域에서 수고하시는 中
에 있다. 本紙記者中 祝文生은
祝電을 보내주실분은 「서울
特別市 성동구 杏樹洞 三九八
의七」田榮澤牧사」로

地域別防衛協定은

(解説)

무엇을爲한 것인가

一九四七年에 여러 自由諸
國이 國際憲章에서 몇개의
地域別防衛協定에 參加하였다.
이 協定은 전체 世界 各國
주의 利益의 保護로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한 地域別協定
이 成立할때마다 全世界은 이
全世界의 安全에 대한 위협이라
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면 이
協定은 무엇인가. 全世界은 이
地域別協定을 무엇인가. 全
이 있는가.

一九五三年九月十七日 亞
細亞會議은 이러한 疑問에
對明瞭한 回答을 全世界에
向하여 발표하였다.
亞細亞會議은 國際會議에서
地域別協定의 利益을 설명하였
다. 다음의 亞細亞會議의 實
으로 全世界은 이러한 協定에
參加한 나라에서 侵略을 防
가 하여 早事위할 必要가 없
는것을 알것이다.

地域別防衛協定의 理由
「왜 우리는 早事위 하는가」
하고 물을것이다. 나는 여기에
대하여 자세히 말할수 있으나
자극적인 말을 하기 싫고 피하고
여기서는 다만 총괄적 사실을
하나 들기로 하자. 그것은 곧
一九三九年以來 약十개의 大
國이 達하는 사람이 全世界의
專制的支配下에 陷혀져 들어갔
고 그중에 어느 하나를 들
보아도 그것이 그나라 혹은
그나라 人民의 自衛的行動이
아니었다는 事實이다. 이러한
早事위 事實은 일찍이 歷史上
에서 볼수없는 일이다.

自由諸國은 무엇을 했는가
自由諸國中에 어떤 나라는
侵略을 막고 그들의 貴重한
生命, 財產을 보호하기 위하
여 가까운 나라끼리 모여서
對策을 강구하였다. 이 對策이
은 國 合意에 依한 施設의 貸
借과 駐兵도 包含되었다.
地域別協定은 侵略을 防
止하는 것이 아니다
全世界의 指導자들은 이러한
地域別協定에 대하여 不平을
하고있다. 그러나 이런 近隣諸
國끼리 하는 協定은 조금도

봉사정신 강조, 군목에 시훈

짜리비 선산한 花郎 師團의 성탄 축하

某地區最前線의 花郎師團은 一九五三年度 크리스마스를...

허위와 실천 (신앙 간증) 나의 갈 길

南宮寔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허위는 현대의 사회에 치하여 있는 우리로서...

리 민족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끼리 봉사한다는 것 이외의 길로...

자녀 12월 30, 31일 양일간 트리니티 神學校에서 개최되었던 제5차...

十六保守的論文公開

二百餘 神學者 第五차福音主義神學者總會

二百年前에 말하는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회합하였는데 공개 학적 논문과 그 감의자는 아래와 같다.

講壇

信仰의再檢討

히브리 11장 1-19

金禹鉉牧師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스스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해 왔으나...

자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린 것이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벨은 생명을 바...

동행하였다는 것은 극히 간단한 면서도 과연 위대한 생활을 표현한 것이다. 삼백년동안이란...

아니다. 아직부터 저년까지 밝히는 것이다. 자는 것이다. 길가는 것이다. 전부 예배의 부모그림...

한글학회 1933. 3. 3. 해이

「漢字」영감과 現存原本과의
관계」- 위튼 대학 교수 케
네스. S. 간필 박사
「성경에 나타난 영혼과 마
음 비표 연구」- 칼빈 대학
켄리, 본, 올 교수
「카논 正經」- 웨스턴인스터
신학 교수 B. B. 스톤하우
스 박사.
「군주시에 있어서의 히브
리어 성경 개역의 가능성」
- 홀러 신학교 교수 테리야드
대미스 교수
「전도서 강해」- 칼빈 신학
교 와이칼론 교수
「제3세기 교회정치상의 여
성의 지위」- 웨리스 신학교
할스. G. 라이리 교수
「성경과 과학의 카톨릭적
접근」- 베델 대학과 신학교
의 교수인 베르날드 캄파사
「이혼 재혼 문제와 죄의
과리」- 은총신학교 엘바 T
켄클레인 교수
「G. H. 氏와 힐라스케스다의
의 의의」- 플튼 신학교 로
절 니콜 교수
「메시아 편에서의 소위 二
重完수」- 밥 존슨 대학교
T. 발든. 페인 교수
「종말론 연구의 현대적 경
향」- 애스베리 신학교 해롤
드. B. 칸 교수
(以上 기독교보에서 전재)

본 특스 선생은 「종교란 것이
이래서는 안되었다 종교와 실
생활 신앙과 장사가 동떨어
져서 안되었다」하고 종교개혁
을 하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신앙이란 것이 이렇게
생활과 거리가 멀어서는 안되
겠다 시머니와 머누리는 따
우다가 예배당에 가서 찬송하
고 기도하고 또 독아와서 악
담하고 싸우고 이래가지고는
안되었다 구교에서는 죄짓고
신부에게 나가서 고백하고 또
죄 짓고 해도 좋다고 한다
그것이 안되었다고 생각되지만
는 사실 우리의 신앙도 사실
이러한 상태라고 할수있다.

한국 요리 법 되 미 점

- 끓는기름에 타지않게 지져가지고 해
도 좋음) 숙주 위에 놓고.
- 5 파를 채쳐서 놓고.
 - 6 미나리를 잘 골라서 손두마디 길이
로 찢어서 살짝 데쳐서 얹고.
 - 7 표고 느타리 목어 석이를 적당히
준비해서 골짜꼭처럼 찢어서 되미
위에 색스럽게 얹고.
 - 8 생강을 곱게 채쳐서 조금 얹고.
 - 9 계란 황백미를 각각 얇게 부쳐서
골짜꼭처럼 찢어서 떠 얹고.
 - 10 당근은 동글납작하게든지 골짜꼭처
럼 이든지 얇게 찢어서 잘 무르도
록 데쳐서 위에 얹고.
 - 11 싹고추를 조금 뿌려 얹고.
 - 12 맑은 장국물을 간장으로 간을 잘
맞추어가지고 녹말을 걸쭉하게 약간
푼고 설탕을 조금 쳐서 끓여가지고
 - 13 되미 위에부어서 화루에 올려놓아
끓여가지고 싹백을 뿌려서 그대로
상에 올려 놓느니라.

氣香 남생각 재생각

인도에 유명한 종교가요 전
도자였던 산다 싱이 한번은
몹시 추운 겨울날 본토인 종
자(從者) 한 사람을 데리고
히마라야 산을 넘어서 티베트
(西藏)로 가던 길이였다. 심
한 추위에 떨며 가는데 마침
길가에 얼어서 가지 못하고
쓰러진 행인이 있었다. 아직도
생명이 남아 있는 행인을 그
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데
리고 가는 본토인을 보고 산
다 싱은 「저 행인을 업고
감시다」 하였으나, 「어떻게
하다가는 우리까지 얼어 죽어
요. 어서 감시다, 선생님」 하
고 말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걸음을 재촉해서 먼저 가 버
린다. 뒤에 남은 산다 선생은
그 사람을 우선 힘써 주물러
주었다. 한참 주물고 나니까
그도 몸이 풀리고 자기도 몸
이 풀렸다. 그래서 행인을 간
신히 업고 가던 길을 가노라
니 앞서 가던 종자는 얼어서
송장이 되었다라고 한다. 남을
생각한 것이 결국 자기를 생
각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다.

春 新 賀 謹

金光均

서울 特別市 鍾路區 鍾路三街八

清宮允伯

東京都北區西ヶ原町四丁目五番地
電話 (9) 四 五 二 三 番

小倉金屬株式會社

社長 朴 南 在
小倉市砂津
電話 (5) 七 〇 五 番

K · K · モナミ

許 彌 爽
東京都新宿區歌舞伎町八七九
電話 (35) 〇〇五七番
二八〇〇番



田榮澤 作

새 세계의 광명(2)

이름날 오후 네시쯤 벌써 어슬어슬해진 다음에야 명에는 겨우 면회 허가를 받아가지고 면회실에 들어가서 태호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현병 한사람과 같이 수염이 길고 얼굴이 검거해가지고 단 사람같이서 얼른 앞마포기가 어둡게 변한 태호가 두부부씩 들어온다 공연히 가

이 두근거리고 있던 명에는 태호의 모습을 보자 참지못하고 종래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숙였다.

“집에서 다들 잘 있었소 아이들도 잘 있고?”

잠시 말을 못하고 서있던 태호는 천연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다 잘 있었어요 당

은 얼마나 추웠어요? 외사를

인것은 받아 잡으셨지요?”

“그래 네 염려는 말아요 과

거 걱정하지 마시라구 어머니

랑 아버지께랑 잘 말씀 들

시오 그러구 한복 한벌 들여

주우”

“가지구 왔어요 벌써 가지고

왔었는데 기다리라고 해서 도

로 가져갔다가 오늘 다시 가

져왔어요 이번엔 받아준대요

그러구 성경책도 가져왔어요”

명에는 눈물이 나고 목이

대서 말을 할수없는것을 겨우

여기까지 말하였다.

“그래 성경책 가져왔어? 벌써

성경책 좀 들여달라고 기

별했는데..... 내가 이런데

들어왔다고 조금도 걱정마시오

물론 몸은 집에 있는것만은

못하지마는 마음은 편안하게

지내니 아무 걱정마시오 나는

여기에서부터 진정으로 기도하

사의 생각이 든 까닭이다.

“그동안 나는 집안 사람들한

데 죄를 많이 지었소 당신에

게도.....”

태호는 말을 채마치지 못하

고 얼굴을 물린다.

“별 말씀을 다 하세요 그런

말씀 마시고 어서 나가서 교

회도 가지구 그러면 한목사님

이랑 어머니 아버지랑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머니 아버지”라는것은 물

론 자기 친정부모를 말하는것

이었다.

“여러분에게 너무 걱정을 끼

쳐 들어서 죄송해요 이제부터

는 여러분에게 걱정을 안시키

기로 결심했소 회사도 다 그

만 두고 이것저것 다 관계

공고 들어앉아서 공부나 하기

로 결심했소 아무렇게 하면

밥이야 못먹겠소 남보다 잘

살아 볼려고 하기에 공연히

고생이지 그동안 나는 사서

고생했는걸 남들은 우리를 잘

사는줄 알았겠지만..... 그동

안 참 나는 무척 고맙겠소

당신에게도 말 못하는 고통을:

여기 들어오니까 도리어 마음

이 편안한걸 이제 나가면 당

신 전에 하던 우동장사나 다

시 합시다.”

태호는 웃으면서 그러나 진

정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명에

를 바라보았다 옆에 지키고

서 있던 현병까지 따라웃었다

“잘 알겠어요 당신의 심경은

잘 알겠어요 이제 성경을 받

아주신다니 성경을 잘 읽으시

고 기도 많이 하세요 한목사님

이 특별히 당신더러 권하라고

하셔요”

“고마운 어르시야요 잘 말씀

드려주우”

“그러구 무어 또 말씀하실것

없어요”

“인제 시간 됐으니 그만 나

가시오”

현병은 명애를 보고 태호를

보고 막다거린다.

태호는 다시 검검한 영창

감방에 들어갔다.

春 ☆ 新 ☆ 賀 ☆ 謹

晒水飴製造多量生産
トラック 運搬業
小型自動車

鄭 得 龍

大垣市世安町二三四〇番地
電話 二四四二番

韓國料理

槿花莊

金海郷

東京都中央區銀座二丁目三
電話(56)五三三〇

ホテル千代田

東京都千代田區九段一ノ一
ホテル千代田

電話 (33) 八二二五番
九四二七番